‘군승 파송 절벽’ 임박, 종단 대응 시급하다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신년기자회견서 대응 촉구

불교‘만’ 정원 미달 ‘출가자 감소’
개신교 10:1, 가톨릭 4:1과 대조
군종교구, 종단 관심 · 대응 호소
‘군종사관후보생’ 활성화가 대안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이 취임 첫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군승으로 군법사의 독신비구 정체성을 강화한 지 10년, 군승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출가자 감소 여파로 군승 파송 절벽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 파송 인원 미달로 향후 국방부 종교정책의 불이익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3월 10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군종특별교구는 군승 파송 미달 사태 현황을 공개했다. 2022년 국방부가 정한 신임 군종장교 정원을 보면 불교는 군승법사 정원 18명 중 8명을 확보, 정원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개신교의 경우 200여 명이 지원하여 10:1의 경쟁률로 군목 18명을 채운 것과, 가톨릭이 4:1의 경쟁률로 군신부 14명을 채운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선일 스님은 “출가자 감소와 군승제도 도입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종립학교에서 선발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라며 “종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승법사는 400여 군법당에서 군포교를 이끄는 핵심요소다. 조계종은 2009년 종헌에서 군승법사의 독신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군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후 종립학교에서 ROTC처럼 일반인이 지원하는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이 급감했고, 스님들로 구성된 군승요원 선발로 사실상 선발이 단일화되어왔다.

이후 급격한 출가자 감소로 해당 연령대의 군승요원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2021년 파송인원 미달 이후 군종특별교구는 선일 스님 취임을 기해 교구본사협의회 등에서 ‘군승 교구의무파송’ 등을 제안했지만 ‘사찰도 젊은 스님들이 없다’는 반발에 부딪쳤다.

문제는 이같은 군승법사 파송 미달 문제가 반복되면 국방 종교정책 상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불교계는 군종장교 파송에서 기독교계의 군종장교 대량 파송에 맞서 불교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포교 현장에서 각 종교의 군종장교 수가 곧 해당종교 포교역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일 스님은 “군승 수급 문제가 계속되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군승 파송은 군종특별교구만의 문제가 아닌 종단적 문제로, 종단과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군종특별교구는 군종교구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승법사 파송 미달 문제는 △군종사관후보생 활성화 △민간인성직자 활동 활성화 △타종단 군종장교 파송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 중 민간인성직자 활동 활성화는 국방부 군종정책 외 요소로, 군종장교를 통한 군포교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타종단 군종장교 파송 문제는 파송주체가 조계종으로 단일화된 문제가 있다. 결국 출가자 감소로 군승요원 확보가 어려워진 지금, 종립학교 재가학생들을 군종사관후보생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군승요원과 달리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한 독신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파송 후 관리에 있어 군승요원과 군종사관후보생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독신 예외조항이 있었던 시기 군종사관후보생은 평균 4: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우수 포교인력 유치의 창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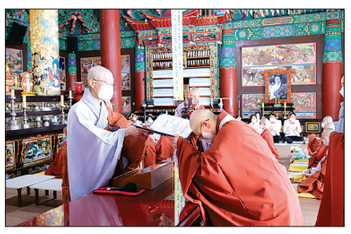
한 군포교 관계자는 “국방부 군전력 강화를 위한 종교지원 예산을 군종장교 인건비 등을 통해 보면 1인당 연간 1억원이 넘는다. 국가 지원 속에 전법포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군종특별교구는 6월 15일 호국홍제사 법당 준공 및 군승교육 강화 등도 공개했다.

수원 봉녕사 율맥 전계식 및 입학식 봉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는 3월 10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6회 전계식과 승가대학 및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전계식을 통해 자운 스님과 묘엄 스님으로 내려온 율맥을 능윤 스님과 도연 스님, 유정 스님, 선정 스님에게 전했다. 그 증표로 가사, 〈계율학집성〉이 수여됐다.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의 전계는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간 율원에 상주하면서 수행이력을 갖춘 스님에게 주어진다. 이어 승가대학 및 금강율학대학원 입학식에서는 봉녕사승가대학에 선본 스님 등 7명,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전문과정에 법일 스님 등 7명, 연구과정에 수연 스님이 입학했다. 노덕현 기자



초기불교 어벤저스 총출동…대강좌 개막

참불선원, 3월 22일 초기불교대학 7기 개강

서울 강남 참불선원서 진행
매주 화 오후2시 강연 나서



K메디테이션, 한류명상을 이끄는 강남 도심 속 명상센터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이 3월 22일 초기불교 대강좌 문을 연다.

이번 대강연은 제7기 초기불교대학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7월 12일까지 총 30강으로 구성된다.

참불선원 초기불교대학은 2018년 시작된 이후 그동안 600여 명이 졸업했다. 코로나 속에서도 6기 과정에는 160여 명이 등록해 수료할 만큼 호응이 높다.

이번 7기 강좌에서는 특별히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교수 스님과 수좌 스님들이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을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 면면은 불교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큼 화려하다.

‘불교원문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대가’ 봉선사 범어연구소장 현진 스님, ‘태국 인터내셔널 불교대학 교수’를 지낸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스님, ‘스리랑카 승려로 한국마하위라센터’ 주지로 있는 불교학 박사 담마끼띠 스님, 한국 불교학 석학으로 꼽히는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 초기불교와 선불교를 아우르는 실참수행 선지식 각산 스님 등이 나선다.

커리큘럼은 ‘오직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교재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입문, 교리체계로 입문자 및 불자들에게 현시대에 맞추어 알기 쉽게 이해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3월 22일 개강 7월 12일 종강으로 현장강의는 100명,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강의는 200명 접수가능하다. 수강료는 9만원이다. 1577-3696 노덕현 기자

불교계 한마음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더프라미스, 1만 달러 모금
동행 · 상월결사, 구호 캠페인
사노위, 침략 규탄 기도회도


조계종 사노위는 3월 11일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러시아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기도회를 봉행했다.

불교계가 전쟁 발발에 따른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긴급 모금캠페인과 모연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는 난민들의 식량과 의료품 지원을 위해 1만 달러(한화 1200만 원 상당) 모금을 목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더프라미스는 모금액으로 우크라이나와 피난민들이 대피한 인접 국가에 식량, 의료품, 방한 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메디피스와 세계봉공재단 연합모금 및 합동대응으로 진행되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협업한다.

국제구호NGO 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는 3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우크라이나 긴급구호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현진 스님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통에 빠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마음을 냈다”며 “어린이 · 여성 등 피난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은 차후 조계종 · 상월결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교계를 넘어 전방위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모금액은 평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난민들의 생명 · 안전을 보호하는 활동에 지원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3월 11일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러시아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기도회를 봉행했다. 위원장 지몽 스님은 “무력을 앞세운 침략전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모두가 불행해지고 대물림되는 결코 용안돼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러시아는 당장 무차별적인 살상을 멈추고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도회 이후 스님들은 ‘전쟁 반대 NO WAR’ ‘살생과 폭력을 멈춰라’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를 들고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을 돌며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에서 벗어나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길 발원했다.

한편 러시아는 2월 24일 미사일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민간인 지역에도 대대적으로 공습을 진행하면서 민간인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임은호 기자

(재)대한불교진흥원 4기 대원청년불자상 수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3월 10일 대원청년불자상 · 동아리상 제4기 수상자를 선정하고 증서 수여식과 함께 86건에 대해 총 2억 1600만 원의 장학 지원금을 전달했다.

대원청년불자상은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침체된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실시한다.

이번 제4기 불자상 · 동아리상은 지난 1월 공고를 낸 이후 접수된 116건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불자상 45명, 동아리상 41곳이 최종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 35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4명, 대학원생 11명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불교 동아리 41개 단체다.

제4기 수상자에게는 상금 총 2억 1600만 원이 지급됐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5차 정기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15차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회칙제·개정, 2022년 사업 예산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니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 불기2566(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
안 건 : ① 회칙제·개정의 건
② 2021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의 건
③ 2022년 사업승인 및 예산심의의 건
④ 기타 안건

불기2566(2022)년 2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우공침술
개·인·지·도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과학이론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운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전화 : 010-4054-7110